

# 여성장애인의 취업 욕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김기태\*\* · 박병현\*\*\* · 강철희\*\*\*\* · 이성규\*\*\*\*\* · 이경희\*\*\*\*\*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들의 취업 욕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여성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 학력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 사회전체에 만연해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과 편견의 영향을 받은 여성장애인 특유의 심리적 요인, 직업 경험 및 직업훈련 경험 등의 사회참여 경험 여부 요인, 부모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태도 요인 등으로 구분해 보고 이의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의 네 가지 범주로 크게 나누어 서울 및 경인지역과 부산 및 경남지역의 여성장애인 805명이었다. 조사의 결과로는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갖는 여성장애인들이 취업욕구 및 취업노력과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장애등급은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모든 종속변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력이 전혀 없었다.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의존도 변수는 취업욕구와 관련된 종속변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의존의 정도가 높은 여성장애인일수록 상대적으로 취업 욕구가 적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령 변수의 경우 취업 노력과 관련된 종속변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여성장애인의 연령이 한 단위씩 높아질수록 취업노력을 실행하는 경우가 높아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연령변수를 제외한 모든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들 즉 수입원천, 결혼상태, 학력의 변수가 모든 종속변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력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직업 경험 여부 변수가 상당히 일관되게 모든 종속변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력이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직업 경험 변수가 취업욕구 수준과 관련된 종속변수 모두에 일관되게 유의미했다.

## I. 서 론

대부분의 후진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장애인 대책도 오랫동안 수용 및 보호 위

\* 본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UNDP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 춘해대학 사회복지과 전임강사

주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해 왔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사회의 주류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노말리제이션 이념의 확산과 1981년 국제연합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와 1988년의 「서울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개입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장애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체 장애인의 45%에 해당하는 약 50만명의 여성 장애인 중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들에 비해서도 교육적, 직업적, 성적, 사회적 측면 등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차별적인 처우를 받음으로써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열악한 상황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경제활동 참여 수준이다. 예를 들면 보건사회연구원(1996: 22)의 조사에 의하면 남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7.7%, 비여성장애인은 47.9%였으나, 여성장애인은 27.7%에 지나지 않았다.

여성장애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전체의 고용경제인력비율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바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지속시키는 문제 중의 하나는 여성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낮은 욕구라고 본다. 따라서 여성장애인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여성장애인 취업활동 참여와 관련한 현상에 대한 지식 축적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개입 방안 마련의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분석은 여성장애인들을 구직자원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및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들의 취업 욕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여성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 학력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 사회전체에 만연해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과 편견의 영향을 받은 여성장애인 특유의 심리적 요인, 직업 경험 및 직업훈련 경험 등의 사회참여 경험 여부 요인, 부모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태도 요인 등으로 구분해 보고 이의 영향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장애유형을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유형별 분류에 근거하여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의 네 가지 범주로 크게 나누어 서울 및 경인지역과 부산 및 경남지역의 여성장애인 805명을 면접 조사하여 자료를 구성하였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미진하여 이에 대한 지식의 체계가 거의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의 상황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다룰 수 없었던 제한점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지금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에 대해 선구적으로 그 내용을 탐색하고 파악해 본다는 측면에서 후속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본다.

## II. 장애인의 취업 욕구에 관한 문헌연구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의 취업 욕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문헌연구들을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취업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요인, 2) 인구학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4) 교육 및 직업훈련경험요인, 5) 개인 및 가족의 태도요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요인

장애유형은 취업 욕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문헌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청각·언어장애가 취업노력과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이다. 보건사회연구원(1996: 28)의 조사에 의하면 미취업 장애인의 취업욕구는 지체장애 38.0%, 시각장애 28.7%, 청각·언어장애 40.8%, 정신지체장애 30.8%로 차이가 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취업의 가능성에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유형인 척수장애는 방광과 직장의 통제불능으로 인해 자유와 자립에 심한 제약을 초래한다. 남성척수장애인에 비해 간헐적 도뇨법이나 외부의 소변수집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여성장애인은 기저귀를 차거나 일정한 간격으로 소변시중이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경희, 1996: 33). Perduta-Fulginti는 여성척수장애인들이 소변관리 주기가 짧기 때문에 의존성이 높아 취업 등 외부 활동이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Perduta-Fulginti, 289-291).

한편 장애의 정도 역시 취업욕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의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이 취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50.9%의 응답자가 '장애가 심해서 일하기 어렵다'는 것을 꼽았다. Brolin(1972)은 재활서비스의 중요성을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직업적 성공과 관련시켜 조사하면서 성공적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의 하나로서 건강상태를 들고 있고, 이선우(1997: 304)도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장애인의 취업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함으로써 장애의 정도가 일을 하려는 욕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 2. 인구학적 요인

#### 1) 연령

장애인의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경제적 자립의 욕구가 보다 강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욕구도 많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수봉(1996: 29)은 장애인에 대한 기업의 수요조사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기업의 고용제외가 증가한다고 보고하면서 연령과

취업 욕구와의 관계의 가능성을 언급한다. 그러나 이선우(1997: 302)는 연령은 취업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보고에서도 장애인의 취업과 관련한 연령적 영향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여성장애인의 경우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7: 64).

## 2) 결혼상태

결혼과 이로 인한 육아여부는 취업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의 하나이다. 결혼을 하면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 욕구가 증가할 수도 있고, 배우자가 직업이 있음으로 인해 취업 욕구가 감소할 수도 있다. 조사대상 장애인 중 남성이 70.6%로 다수를 차지하는 자료에 기초한 이선우(1997: 302)의 연구는 결혼을 한 장애인들은 미혼의 장애인들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면서 결혼이 취업에 대한 욕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Wagner(1992)는 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이 남성장애인보다 낮은 이유로 결혼과 어머니가 되어 아동 양육을 하는 것을 들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학교를 졸업한 후 2년 내에 결혼하는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12%에 달하지만, 남성장애인들은 단지 4%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학교를 졸업한 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여성장애인들의 30%가 결혼을 하지만 남성장애인들은 단지 18%에 불과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장애인이 결혼과 함께 취업에 대한 욕구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어머니가 되는 비율은 41%로 비장애여성의 28%보다 많고, 장애가 있는 어머니들이 취업을 하는 비율은 31%인데 반해 아이가 없는 여성장애인들의 46%가 취업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결혼하여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 즉 아동양육의 역할이 취업 욕구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 3) 학력

장애인의 경우에도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에 대한 욕구가 높을 수 있음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이에 관련된 연구의 결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Brolin(1972)은 장애인의 성공적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의 하나로 기술과 독해력 및 산수실력을 들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들고 있다.

## 3. 개인 심리적 요인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체적 이상에 대하여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에 비하여 대인관계에서 긴장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 특히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사교성이 부족하기 때문

에 직장에서 동료와 원활한 관계를 이루기 어렵고 협동작업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최영하, 1994). 장애인이 갖을 수 있는 이러한 심리적 요인이 장애인의 취업 욕구를 감소시킬 수 있다. Lunnenborg와 Wilson(1982)은 여성장애인들이 취업하려고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사회적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으로 나누면서 개인적 요인으로 유아기부터 사회화되고 강화된 개인적인 습관과 심리적 태도에 주목한다. Maccoby과 Jacklin(1974)은 개인적 요인에는 경쟁에 대한 공포심, 성규범, 제한된 자아존중감, 리더쉽에 대한 낮은 동기, 학습된 무력감 등이 포함됨을 밝힌다. 또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덜 단언적인 특징을 가질 수 있음이 지적된다 (Russo and Jansen, 1988). Patton, Beirne-Smith와 Payne(1990)은 정신지체여성장애인은 실패할지 모른다는 높은 불안의식, 자기의 존보다는 외부의 지시에 따르려는 경향, 낮은 자존감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수영(1998)도 여성장애인은 성격의 결여, 수동성, 사회적 고정관념과 선택권의 부족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 4. 사회적 요인

사회적 통념은 여성의 취업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장애, 성, 연령에 대한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장애 등을 갖는 사람들이 직업을 갖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보고하고 있다(Silberman, Simon, and Woodrow, 1991: 712).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은 일을 하기보다는 가정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회통념이 있어 왔다. 이 사회통념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승된다고 볼 수 있다. Matlin(1987)은 아동들은 3세 정도만 되면 남성과 여성이 직업적으로 어떤 정형화된 관점을 지녀야 하는지 인식하여, 여성은 미(美)를 추구해야 하고, 수동적이 되어야 하며, 가정에서 아동의 양육에 전념해야 하는 반면, 남성은 가정 밖에서 일을 해서 가정을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러한 사회적 의식들은 사회화를 통하여 여성장애인 자신은 물론 노동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업주, 그리고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에게 일반화되어 있다. Deegan과 Brooks도 여성장애인들이 성과 장애에 관련한 사회적 기대로 인해 노동시에서 이중적인 위협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Fulton, and Sabornie, 1994: 150). 이러한 논의들은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영향으로 상당히 낮은 취업 욕구를 지닐 수 있음을 암시한다.

#### 5. 직업경험 및 직업훈련경험요인

직업경험과 직업훈련 경험은 여성장애인의 취업 욕구 및 자신감에 영향력을 갖는 중요한 요인

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해 다양한 실증적인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Wagner(1992: 19)는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이 직업훈련에서 일반적 기초교육을 받는데 보낸 시간은 비슷하나, 남성장애인에 비해 여성장애인들은 직업과 관련된 특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기 때문에 취업률에서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Fourqurean 등도 백인중산층 계층의 고교졸업생 및 중퇴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직업 경험이 현저하게 낮음을 지적하고 있다 (Fourqurean, Meisgeier, Swank, and Williams, . 1991: 400-405.). 이러한 주장을 통해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의 기회가 여성장애인들의 취업 욕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 6. 가족구성원들의 태도

장애자녀를 둔 부모는 비장애인과 직장에서 동등한 봉급을 받기 어려울 것이고 비장애인과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할지 의문을 갖고 아울러서 경쟁이 있는 직장에서 일반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된다(구본권 외, 1995: 424). 이러한 부모들의 태도는 여성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관심과 욕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인지체자녀를 갖는 부모의 자녀 취업에 대한 태도에 대해 연구한 최중옥(1981)은 장애자녀가 단순한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한 부모가 41%이며, 비장애인과 동일한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5%에 불과하며, 단순한 직업도 불가능하다는 부모가 14%나 되며, 모르겠다는 부모가 40%임을 보고한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태도가 취업에 대한 장애자녀의 관심과 욕구에 긍정적이든 혹은 부정적이든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추론케 한다.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에 관한 국내의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장애인들이 직업을 갖지 못하는 이유로서 의사소통의 불편이나 교통불편 등의 문제보다는 가족 등 주위사람들의 만류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장애우권의문제연구소, 1997: 43).

## III. 연구의 방법

### 1. 조사 대상자와 대상자 추출 방법

여성 장애인의 취업과 관련된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1998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 및 경기 지역과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 805명의 여성 장애인(정인지체의 경우에는 그들의 가족 구성원)들과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의 연구 대상자들은 multiple cluster

sampling의 방법을 활용하여 추출했다. 먼저 서울 및 경기와 부산 및 경남의 샘플 비율을 반반으로 정하고, 구(區)의 추출 후에 동(洞)을 추출하고 마지막으로는 각 동으로부터 경제활동 연령에 속하는 등록된 여성 장애인들의 리스트를 구성하여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샘플의 규모로 정한 800명보다 5명이 많은 805명의 여성 장애인들을 추출하고 그들과 개별적인 인터뷰를 하여 본 연구의 자료를 형성하였다. 805명의 여성 장애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장애 유형을 중심으로 대상자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즉 지체장애인의 비율을 50%, 시각장애인의 비율을 20%, 청각·언어장애인의 비율을 20%, 그리고 정신지체장애인의 비율을 10%로 정하여 비교 가능한 유형별 규모를 가져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 인터뷰의 실행과정에서 실제적인 접근의 어려움으로 그 비율에는 다소의 경감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지체장애인 405명 (50.3%), 시각장애인 147명 (18.3%), 청각·언어장애인 157명 (19.5%), 정신지체 장애인 96명 (11.9%)이 연구의 최종 대상으로 활용되어졌다. 이러한 대상자 추출 과정에서 본 연구는 보다 엄밀한 기준에서 확률적 샘플링을 완벽하게 수행하지는 못하였고 이와 관련된 제한성을 가질 수도 있다.

## 2.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여성장애인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 수준이다. 취업에 대한 욕구 수준의 측정은 일(직업)을 원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과 일(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을 통합하여 3가지 범주로 재구성하였다. 첫 번째 범주는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취업 욕구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두 번째 범주는 취업에 대해 욕구는 있으나 노력까지는 행하지 않는 경우이고(취업에 대해 욕구만 있는 상태), 세 번째 범주는 취업을 위해 노력을 수행해온 경우(취업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를 예측하는 독립변수로 크게 장애 상황변수들,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들, 직업 및 직업 훈련 경험 변수들, 개인 및 가족의 태도 변수들 등의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첫째, 장애상황 변수들로는 장애유형, 장애등급, 일상생활의 의존도가 포함되었다. 장애유형은 지체 장애, 청각 및 언어 장애, 시각 장애, 정신지체로 구분하였고 장애등급은 6등급을 1-2등급, 3-4등급, 5-6등급 등 세 가지 범주로 재구성하였다. 일상생활의 의존도는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 도움이 필요 없는 경우, 일부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도움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 세 가지 범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들로는 연령, 수입원천, 결혼상태, 학력이 사용되었다. 연령은 logistic 회귀분석에서는 연속변수 그대로 사용되었고, Chi-Square 분석에서는 30세 이하, 31-40세, 41-50세, 51세 이상 등의 4범주로 분류하여 사용되어졌다. 수입원천은 기본적으로 가정의 구성원에 의해서 충당되는지 혹은 국가나 친척 등의 외부적인 도움에 의해서 충당되는 지로 측정되어졌다. 기술적인 분석에서

는 여성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개인의 소득이 연속변수로서 활용되어졌으나 logistic 회귀분석에서는 수입원천과의 multicollinearity의 문제 때문에 사용되지 않았다. 결혼상태는 미혼, 기혼, 사별·이혼·별거 등 세 가지 범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하, 중졸, 고졸 이상 등 세 가지 범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셋째, 직업 및 직업 훈련 경험 관련 변수들로는 직업 경험과 직업 훈련 경험이 포함되었다. 직업 경험은 그 여부로서 측정되었고, 직업 훈련의 경험도 역시 그 여부로서 측정되었다. 넷째, 개인 및 가족의 태도 변수들로는 자립의지, 여성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 여성장애인의 장애 문제 해결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사용되었다. 자립의지는 자신의 문제 해결과 관련된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4점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립의지의 모든 문항 값을 합한 후 평균을 낸 후에 그 평균값이 2점 미만인 경우에는 자립의지가 약한 것으로, 2점 이상 3점 미만인 경우에는 자립의지가 중간 정도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3점 이상인 경우에는 자립의지가 높은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부모의 교육태도는 포기한 경우, 다른 자녀와 동등하게 대한 경우, 더 열성적으로 대한 경우 등 세 가지 범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 장애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자립시키기 위해 노력한 경우, 부모나 형제에게 의존시키려 한 경우, 결혼으로 해결하려는 경우 등 세 가지 범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표집되어진 여성 장애인들의 실태 및 특징들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평균 및 중간값 등의 기술적 자료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고, 취업에 대한 욕구의 수준과 장애 상황변수들,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들, 직업 및 직업 훈련 경험 변수들, 개인 및 가족의 태도 변수들 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Chi-square Test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여성장애인들의 취업 욕구 수준에 대한 독립 변수들의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logistic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logistic 회귀분석에서는 먼저 취업 욕구가 전혀 없는 상태, 취업에 대해 욕구만 있는 상태, 취업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상태의 범주로 구성되는 종속변수를 다음과 같은 다섯 형태의 내용을 갖도록 재구성하고 이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각기 살펴보았다. 먼저 취업 욕구가 전혀 없는 상태 대 욕구만 있는 상태만을 종속변수의 범주로, 두 번째로는 욕구만 있는 상태 대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상태를 종속변수의 범주로, 세 번째로는 욕구가 전혀 없는 상태 대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상태를 종속변수의 범주로, 네 번째로는 취업 욕구가 전혀 없는 상태 대 어떤 형태이든 욕구가 있는 상태(욕구만 있는 경우와 적극적 표출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괄)를 종속변수의 범주로, 마지막으로 욕구가 없거나 소극적인 상태 대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상태를 종속변수의 범주로 구성하여 각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다



섯 형태의 조합을 통해 구성된 각 종속변수에 대해서 먼저 장애상황 변수 모형, 인구사회화적인 변수 모형, 직업경험 및 훈련 변수 모형, 개인 및 가족의 태도관련 변수 모형 등의 각 독립 변수 모형을 통해 먼저 각 모형에 속한 독립 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해 보고 최종적으로는 각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만을 선택하여 최종 모형을 구성하여 이 모형에 포함된 각 변수의 예측력과 그 유의미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 4. 연구 질문

선행 연구결과와 위의 논의들을 기초로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들의 취업 욕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탐색적 연구 질문을 갖는다.

첫째, 여성장애인은 어떠한 일반적 특징을 가지고 그들의 취업 욕구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어떤 변수들이 여성장애인의 취업 욕구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셋째, 여성장애인의 취업 욕구 수준의 차이를 예측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어떤 변수들인가?

### IV. 자료분석의 결과

#### 1. 여성장애인의 일반적 특징 및 취업욕구 및 취업노력에 관한 기술적 분석

본 연구의 표본을 구성하는 805명의 여성 장애인의 장애 상황은 <표 1-1>에서 요약되는 바와 같다. 지체장애인 405명(50.3%), 청각·언어장애인 157명 (19.5%), 시각장애인 147명(18.3%), 정신 지체장애인 96명(11.9%)으로 구성된 본 연구의 표본에서 1-2등급의 장애등급을 갖는 여성 장애인이 449명(55.8%), 3-4등급의 장애등급을 갖는 여성장애인이 251명(31.2%), 5-6등급의 장애등급을 갖는 여성장애인이 105명(13.0%)이었다. 즉 본 연구의 표본은 1-2등급에 해당되는 중증 여성장애인의 비중이 반 이상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일상생활 의존도에 있어서는 응답자 766명 중 도움 없이 생활 가능하다고 응답한 여성장애인이 358명(47%), 일부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장애인이 276명(36%), 전반적으로 도움이라도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장애인이 132명(17%)임을 나타내어 본 연구의 표본은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장애

인의 비중이 반정도가 됨을 보여준다.

<표 1-1> 장애상황

분 류	내 용	빈도	(%)
장애유형	지체장애	405	(50.3)
	청각·언어장애	157	(19.5)
	시각장애	147	(18.3)
	정신지체	96	(11.9)
	전체	805	(100.0)
장애등급	1-2등급	449	(55.8)
	3-4등급	251	(31.2)
	5-6등급	105	(13.0)
	전체	805	(100.0)
일상생활의존정도	도움없이 생활가능	358	(47.0)
	일부도움 필요	276	(36.0)
	도움이 필요	132	(17.0)
	전체	766	(100.0)

<표 1-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연령에서는 전체 응답자 792명 중 15세-30세가 223명(28.2%), 31-40세가 198명(25.0%), 41세-50세가 222명(28.0%), 51세 이상이 149명(18.8%)이고 평균값은 38.6세, 중간값은 40세로서 본 연구의 표본은 38세와 40세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연령 대에 속하는 여성장애인들을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에서는 응답자 790명 중 무학 및 초등학교 졸업자가 338명(42.8%), 중학교 졸업자가 144명(18.2%),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가 308명(39.0%)으로서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 학력의 수준이 상당히 낮음을 나타낸다. 종교에서는 응답자 797명 중 기독교가 294명(36.9%), 무교가 196명(24.6%), 불교가 176명(22.1%), 천주교가 125명(15.4%)으로 약 과반수 이상이 기독교와 천주교를 종교로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의 가족 구성에서는 응답자 793명 중 본인·배우자·자녀의 가족 구성이 287명(36.2%), 본인·부모·형제자매의 가족 구성이 156명(19.7%), 본인·자녀의 가족 구성이 109명(13.7%), 본인·부모의 가족 구성이 62명(7.8%)으로 여성장애인들의 가족 구성이 전반적으로 다양하나 본인·자녀 및 본인·부모의 가족 구성을 갖는 여성장애인이 약 1/5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결혼 상태를 보면 응답자 793명 중 기혼이 399명(50.3%), 미혼이 267명(33.7%), 사별·이혼·별거가 127명(16.0%)으로 본 연구 표본을 구성하는 여성장애인의 과반수 정도가 기혼 상태의 여성장애인임을 나타낸다.

<표 1-2> 인구·사회적 상황

분 류	내용	빈도	(%)
연령	15 - 30세	223	(28.2)
	31 - 40세	198	(25.0)
	41 - 50세	222	(28.0)
	51세이상	149	(18.8)
	전체	792	(100.0)
학력	초졸 이하	338	(42.8)
	중졸	144	(18.2)
	고졸이상	308	(39.0)
	전체	790	(100.0)
종교	기독교	294	(36.9)
	천주교	123	(15.4)
	불교	176	(22.1)
	무교	196	(24.6)
	기타	8	(1.0)
	전체	797	(100.0)
현재의 가족 구성	본인·배우자·자녀	287	(36.2)
	본인·부모·형제자매	156	(19.7)
	본인·자녀	109	(13.7)
	본인·부모	62	(7.8)
	기타	179	(22.6)
	전체	793	(100.0)
결혼상태	미혼	267	(33.7)
	기혼	399	(50.3)
	사별·이혼·별거	127	(16.0)
	전체	793	(100.0)
수입원천	가족내충당	530	(75.4)
	국가·친척지원 -	173	(24.6)
	전체	703	(100.0)

분 류	평균소득과 중간값	표준편차 (S·E)	전체
가구소득	94.9247만원, 70만원	80.8339	611
장애인 개인소득	24.2910만원, 0만원	39.2449	600

가족의 수입원천을 보면, 응답자 703명 중 가족내 구성원들의 경제활동으로 생활하는 여성장애인이 530명(75.4%), 국가나 친척의 지원으로 생활하는 여성장애인이 173명(24.6%)으로 본 연구 표본의 약 1/4 정도가 국가나 친척의 지원으로 생활하는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서 여성장애인의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을 살펴보면 여성장애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약 95만원이고 여성장애인 개인소득은 약 25만원 그리고 가구 소득의 중간값은 70만원이고 개인 소득의 중간값은 0으로서 본 연구의 표본을 구성하는 여성장애인 개인 및 가구의 경제 수준은 상당히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표 1-3> 직업경험·취업욕구·취업노력 관련상황

분 류	내 용	빈도	(%)
직업경험여부	있음	522	(65.5)
	없음	275	(34.5)
	전체	797	(100.0)
현재수입과 관련된 일의 여부	있음	247	(47.0)
	없음	278	(53.0)
	전체	525	(100.0)
취업욕구 여부	있음	500	(75.3)
	없음	164	(24.7)
	전체	664	(100.0)
취업노력 여부	있음	334	(67.7)
	없음	159	(32.3)
	전체	493	(100.0)
직업훈련경험여부	있음	127	(16.0)
	없음	661	(83.9)
	전체	788	(100.0)
구직등록 여부	있음	116	(14.6)
	없음	681	(85.4)
	전체	797	(100.0)

<표 1-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직업경험여부에서는 응답자 797명 중 직업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이 522명(65.5%), 직업경험이 없는 여성장애인이 275명(34.5%)으로 본 연구의 표본은 여성장애인의 약 2/3정도가 직업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수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서는 응답자 525명 중 현재 수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이 247명(47.0%), 현재 수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여성장애인이 278명(53.0%)으로 직업 경험의 변수와 연관시켜 보면 직업 경험이 있는 여성 장애인의 약 1/2 정도가 현재도 수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취업욕구를 살펴보면 응답자 664명 중 취업욕구가 있는 여성장애인이 500명(75.3%), 취업욕구가 없는 여성장애인이 164명(24.7%)으로 본 문항과 관련 있는 여성장

에인의 3/4정도가 취업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보여준다. 취업노력 여부를 살펴보면 응답자 493명 중 취업노력을 행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이 334명(67.7%), 취업노력을 행하지 않는 여성장애인이 159명(32.3%)으로 취업노력의 질문에 응답한 여성장애인 중 약 2/3정도가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업훈련 경험여부에서는 응답자 788명 중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이 127명(16.0%),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여성장애인이 661명(83.9%)으로 여성장애인의 약 4/5정도가 직업 훈련을 받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직업 훈련이 여성장애인들에게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구직등록 여부를 살펴보면 응답자 797명 중 구직등록을 행한 여성장애인이 116명(14.6%),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여성장애인이 681명(85.2%)으로 구직등록을 통해 일을 가져 보려는 여성장애인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구직등록제도에 대한 활용이나 접근이 원활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표 1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자립의지에서는 응답자 774명 중 자립의지가 평가 척도의 중간점수보다도 낮은 여성장애인 즉 낮은 자립의지를 갖는 여성장애인이 247명(31.9%), 중간 정도의 자립의지를 갖는 여성장애인이 437명(56.5%), 높은 수준의 자립의지를 갖는 여성장애인이 90명(11.6%)으로 본 연구의 표본은 여성장애인의 과반수가 중간정도의 자립의지를 갖고 낮은 자립의지를 갖는 여성장애인이 높은 자립의지를 갖는 여성장애인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자립의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여성 장애인에 대한 부모의 교육태도를 보면 응답자 588명 중 부모가 여성장애인의 교육을 포기한 경우가 171명(29.1%), 다른 형제자매와 동등하게 대한 경우가 258명(43.9%), 더 열성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가 159명(27.0%)으로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한 태도와 차이가 없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지나 포기한 경우도 상당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포기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은 국가의 정책 미비 및 장애인을 갖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의 현실적 문제와 상당히 높은 관계를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여성장애인의 생활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들의 교육 수준에서 무학이나 초등학교 정도의 교육을 갖는 여성장애인이 43%정도 되는 것과 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의 장래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살펴보면, 응답자 582명 중 '자립시키려고 노력했다'고 응답한 여성장애인이 279명(47.9%), '부모·형제자매에게 의존시키려 했다'고 응답한 여성장애인이 223명(38.3%), '결혼으로 해결하려 했다'고 응답한 여성장애인이 80명(13.7%)으로 본 연구의 표본은 여성장애인을 자립시키려고 노력한 부모가 약 1/2 정도 그리고 부모·형제 자매 혹은 결혼으로 장래를 해결하려고 한 경우가 약 1/2정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1-4> 여성장애인 자신과 가족의 태도

분 류	내용	빈도	(%)
자립의지	낮음	247	(31.9)
	중간	437	(56.5)
	높음	90	(11.6)
	전체	774	(100.0)
여성장애인 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	포기	171	(29.1)
	동등	258	(43.9)
	더 열성적	159	(27.0)
	전체	588	(100.0)
여성장애인 장래에 대한 부모의 태도	자립시키려 노력	279	(47.9)
	부모·형제에게 의존	223	(38.3)
	결혼으로 해결	80	(13.7)
	전체	582	(100.0)

## 2. 여성장애인의 특성 변수들과 취업욕구 수준의 관계에 관한 Chi-square 분석

취업에 대한 욕구의 수준을 욕구가 전혀 없는 상태, 욕구만 있는 상태,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상태로 구분해 보고, 여성 장애인의 취업 욕구 수준과 관계가 있을 수 있는 변수들을 장애상황 변수들,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들, 직업경험 및 훈련 변수들, 그리고 개인 및 가족의 태도 관련 변수들로 나누어서 그 관계의 유의미성을 파악해 보았다. 먼저 <표 2-1>은 장애상황 변수로 선정된 장애유형, 장애등급, 일상생활에서의 의존정도 모두가 여성장애인의 취업 욕구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장애유형과의 관계를 보면 정신지체의 문제를 지니는 여성 장애인의 과반수 이상이 취업욕구가 없는 상태고 청각 및 언어의 문제를 지니는 여성 장애인의 약 2/3정도가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상태로서 장애유형에 따라서 취업욕구의 수준이 다름을 나타낸다. 장애등급과의 관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수록 즉 장애등급이 3·4등급으로 그리고 5·6등급으로 갈수록 실제로 취업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상태에 있는 여성장애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보다 높아지고 취업욕구가 전혀 없는 여성장애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보다 낮음을 보여준다. 일상생활 의존정도와의 관계에서도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을 덜 필요로 할수록 취업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상태에 있는 여성장애인의 비중이 보다 높고 취업욕구가 전혀 없는 여성장애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보다 낮음을 보여준다. 즉 장애의 정도와 일상생활에서의 의존도에 따라 여성장애인들의 취업욕구가 상당히 다름을 나타내고 있다.

<표 2-1> 장애 상황 및 인구학적인 상황과 취업욕구 수준

분류			취업 욕구 수준							
			취업욕구가 전혀 없는 상태		취업욕구만 있는 상태		취업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상태		총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장애 상황	장애유형**	지체장애	69	(21.6)	73	(22.9)	177	(55.5)	319	(100.0)
		청각·언어장애	21	(16.4)	21	(16.4)	86	(67.2)	128	(100.0)
		시각장애	31	(25.2)	41	(33.3)	51	(41.5)	123	(100.0)
		정신지체	43	(50.6)	23	(27.1)	19	(22.4)	85	(100.0)
		전체	164	(25.0)	158	(24.1)	333	(50.8)	655	(100.0)
	장애등급**	1-2등급	110	(29.3)	99	(26.3)	167	(44.4)	376	(100.0)
		3-4등급	37	(18.8)	47	(23.9)	113	(57.4)	197	(100.0)
		5-6등급	17	(20.7)	12	(14.6)	53	(64.6)	82	(100.0)
		전체	164	(25.0)	158	(24.1)	333	(50.8)	655	(100.0)
	일상생활 의존정도 **	도움없이	44	(15.5)	71	(25.0)	169	(59.5)	284	(100.0)
		일부도움	53	(23.2)	54	(23.7)	121	(53.1)	228	(100.0)
		도움이필요	56	(51.4)	21	(19.3)	32	(29.4)	109	(100.0)
전체		153	(24.6)	146	(23.5)	322	(51.9)	621	(100.0)	
인구사회학적 상황	연령*	15 - 30세	42	(23.7)	57	(32.2)	78	(44.1)	177	(100.0)
		31 - 40세	30	(19.0)	40	(25.3)	88	(55.7)	158	(100.0)
		41 - 50세	47	(26.0)	37	(20.4)	97	(53.6)	181	(100.0)
		51세이상	41	(31.8)	22	(17.1)	66	(51.2)	129	(100.0)
		전체	160	(24.8)	156	(24.2)	329	(51.0)	645	(100.0)
	수입원천	가족내충당	104	(25.2)	104	(25.2)	204	(49.5)	412	(100.0)
		국가·친척지원	42	(27.3)	29	(18.8)	83	(53.9)	154	(100.0)
		전체	146	(25.8)	133	(23.5)	287	(50.7)	566	(100.0)
	결혼상태*	미혼	56	(26.8)	63	(30.1)	90	(43.1)	209	(100.0)
		기혼	77	(23.2)	78	(23.5)	177	(53.3)	332	(100.0)
		사별·이혼·별거	28	(26.9)	15	(14.4)	61	(58.7)	104	(100.0)
		전체	161	(25.0)	156	(24.2)	328	(50.9)	645	(100.0)
	학력**	초졸이하	92	(32.5)	56	(19.8)	135	(47.7)	283	(100.0)
		중졸	28	(23.1)	32	(26.4)	61	(50.4)	121	(100.0)
		고졸이상	41	(17.2)	67	(28.0)	131	(54.8)	239	(100.0)
		전체	161	(25.0)	155	(24.1)	327	(50.9)	643	(100.0)

#p <.1 \*p <.05 \*\*p <.01

연령, 수입원천, 결혼상태, 학력 등의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들과의 관계를 보면 수입원천을 제외한 모두가 여성장애인의 취업 욕구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연령과의 관계를 보면, 연령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취업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상태의 비중이 높는데, 51세 이상의 경우 취업 욕구가 전혀 없는 상태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보다 높음을

보여준다. 한편 결혼상태와의 관계를 보면, 사별·이혼·별거 등의 상태에 있는 여성장애인들이 취업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보다 높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는 이유는 그러한 결혼상태에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경제적인 취약함과 상당히 높은 관계를 가질 것으로 보며,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력과의 관계를 보면, 학력이 낮은 여성장애인들 중에 취업 욕구가 없는 상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학력이 높은 여성장애인들 중에는 취업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상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이 나타난다. 즉 학력에 따라 매우 일관되게 여성장애인의 취업욕구 수준이 다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표 2-2>는 직업경험과 직업훈련경험 등의 변수들이 취업욕구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업 경험과의 관계를 보면 직업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의 약 2/3정도가 취업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상태에 있고 직업 경험이 없는 여성장애인의 약 1/4만이 취업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즉 직업 경험이 없는 여성장애인의 약 3/4 정도가 취업욕구가 전혀 없거나 취업욕구만을 지닌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 경험이 취업에 대한 욕구 수준과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변수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직업훈련경험의 변수와의 관계에서도 일관되게 관찰된다. 즉 직업 훈련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의 약 3/4정도가 취업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상태에 있고 직업 훈련의 경험이 없는 여성장애인의 1/2이상이 취업욕구가 전혀 없거나 적극적으로 표출되지 않은 취업욕구만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개인 및 부모의 태도 변수들과의 관계를 보면, 여성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제외한 여성장애인의 자립의지와 여성장애인 장래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취업 욕구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자립의지와 관계를 보면, 스스로 독립된 생활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는 여성장애인의 약 2/3가 취업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상태에 있음에 반해 자립 의지가 약한 여성장애인의 약 1/3정도만이 취업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장애인의 장래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의 관계에서는 여성장애인을 자립시키려 노력한 부모를 갖는 여성장애인의 약 3/5정도가 취업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상태에 있음에 반해, 부모나 형제에게 의존시키려 했던 부모를 갖는 여성장애인들 중 약 1/3정도나 취업욕구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부모나 형제에게 의존시키려 했던 부모를 갖는 여성장애인들 중 취업욕구가 전혀 없는 것의 비중(31%)이 장래에 대해 다른 태도를 가졌던 부모를 갖는 여성장애인들 중 취업욕구가 전혀 없는 것의 비중(13.6%와 17.9%)보다 훨씬 높아 장래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여성장애인의 취업 욕구에 상당히 중요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결혼으로 여성장애인의 장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부모를 갖는 여성장애인의 3/5이상이 취업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취



업육구 수준과 자립시키려는 태도 및 부모·형제에게 의존시키려는 태도 등의 범주와의 관계는 상당히 일관성 있어 그 관계의 의미가 논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으나 결혼을 통한 여성장애인 장애 해결의 태도와의 관계는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그 의미가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표 2-2> 직업 경험, 직업 훈련 경험 및 가족의 특징과 취업 육구 수준

분류			취업 육구 수준							
			취업육구가 전혀 없는 상태		취업육구만 있는 상태		취업육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상태		총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직업 경험 여부**	있음	있음	58	(15.2)	60	(15.7)	263	(69.0)	381	(100.0)
		없음	104	(38.7)	98	(36.4)	67	(24.9)	269	(100.0)
		전체	162	(24.9)	158	(24.3)	330	(50.8)	650	(100.0)
	직업 훈련 경험여부**	있음	11	(11.5)	15	(15.6)	70	(72.9)	96	(100.0)
		없음	152	(27.7)	140	(25.5)	256	(46.7)	548	(100.0)
		전체	163	(25.3)	155	(24.1)	326	(50.6)	644	(100.0)
개인 가족의 태도	자립의지**	2점 미만	91	(42.7)	50	(23.5)	72	(33.8)	213	(100.0)
		2-3점	55	(15.3)	94	(26.2)	210	(58.5)	359	(100.0)
		3점 이상	9	(16.1)	9	(16.1)	38	(67.9)	56	(100.0)
		전체	155	(24.7)	153	(24.4)	320	(51.0)	628	(100.0)
	부모의 교육태도	포기	39	(28.7)	35	(25.7)	62	(45.6)	136	(100.0)
		동등	41	(20.1)	47	(23.0)	116	(56.9)	204	(100.0)
		더 열성적	24	(18.6)	36	(27.9)	69	(53.5)	129	(100.0)
		전체	104	(22.2)	118	(25.2)	247	(52.7)	469	(100.0)
	부모의 장래태도**	자립시키려 노력	28	(13.6)	53	(25.7)	125	(60.7)	206	(100.0)
		부모·형제에게 의존	58	(31.0)	49	(26.2)	80	(42.8)	187	(100.0)
		결혼으로 해결	12	(17.9)	12	(17.9)	43	(64.2)	67	(100.0)
		전체	98	(21.3)	114	(24.1)	248	(53.9)	460	(100.0)

#p <.1 \*p <.05 \*\*p <.01

### 3. 여성장애인의 취업욕구 수준에 관한 logistic 회귀분석

<표 3-1>에서부터 <표 3-5>는 욕구가 전혀 없는 상태, 욕구만 있는 상태,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상태의 세 범주로 구성되는 취업 욕구 수준 변수를 다섯 형태의 내용을 갖도록 재구성하고 각 종속변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력을 갖는 변수들이 무엇인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정리한 것이다. 먼저 <표 3-1>은 취업의 욕구가 전혀 없는 상태와 욕구만 있는 상태의 구분을 예측하는 변수들의 파악과 관련된 모형들의 정리이다. 장애상황 변수 모형(모형 I)에서는 장애유형과 일상생활에서의 의존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인구사회학적인 변수 모형(모형 II)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연령과 학력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직업경험 및 훈련 변수 모형(모형 III)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없고, 개인 및 가족의 태도관련 변수 모형(모형 IV)에서는 여성장애인 개인의 자립의지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각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만을 선택하여 구성한 최종모형(모형 V)에서는 장애유형, 일상생활에서의 의존도, 연령, 자립의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종모형을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계수를 해석하면, 장애유형에서 지체장애를 갖는 여성장애인들은 정신지체를 갖는 여성장애인들에 비해 취업에 대해 욕구를 전혀 갖지 않는 상태와 욕구만이라도 갖는 상태의 비교에서 욕구만이라도 가질 odds가 2.84배 크고, 시각장애를 갖는 여성장애인들은 욕구만이라도 가질 odds가 정신지체를 갖는 여성장애인들에 비해 7.77배 큼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정신지체를 갖는 여성장애인이 취업욕구를 전혀 갖지 않을 odds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일상생활 의존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여성장애인이 도움의 필요성을 한 수준 더 높게 가질 때 취업의 욕구만이라도 가질 odds가 54% 떨어짐을 즉 그 odds가 46%씩 감소됨을 보여준다. 한편 연령에서도 여성장애인의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하면 취업의 욕구만이라도 가질 odds가 94% 떨어짐을 즉 그 odds가 6%씩 감소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자립의지의 경우, 여성장애인의 자립의지가 한 수준 더 높아질 때 취업의 욕구만이라도 가질 odds가 13%씩 증가함을 나타낸다. 최종 모형을 기초로 결과를 정리하면, 취업에 대해 전혀 욕구가 없는 상태와 취업에 대해 욕구만이라도 갖고 있는 상태와의 구별을 예측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큰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장애 유형과 일상 생활 의존도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일정 유형의 장애를 갖는 여성 장애인을 둘러싼 현실적인 제한성, 특히 정신지체의 문제를 갖는 여성장애인들의 경향성과 상당히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조사 연구와 복지 정책 및 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개입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3-1> 취업욕구의 적극성에 대한 예측 1-취업 욕구가 전혀 없는 상태 대 취업에 대해 욕구만 있는 상태의 구분을 위한 logistic 회귀 분석 결과

분류	독립변수		모형 I		모형II		모형III		모형IV		모형V		
			B	S.E	B	S.E	B	S.E	B	S.E	B	S.E	
장애 상황	장애유형	지체장애	.6045	.3465							1.0427*	.4687	
		청각·언어장애	.1201	.4657							.4726	.5807	
		시각장애	.9949**	.3857							2.0504**	.5363	
		정신지체	-	-							-	-	
	장애등급 (1-6등급)												
		일상생활의존정도	-.731**	.1663							-.623**	.1993	
인구 사회 적 상황	연령				-.04**	.0145					-.062**	.0139	
	수입원천	가족내충당			.0242	.3052							
		국가·친척지원			-	-							
	결혼상태	미혼			-.5937	.5250							
		기혼			.1028	.4100							
		사별·이혼			-	-							
	학력	초졸이하			-.9504	.2993						.0238	.3372
		중졸			-.453**	.3800						.1533	.3894
		고졸이상			-	-						-	-
직업 및 직업 훈련 경험	직업경험여부						.0030	.2395					
	직업훈련경험여부						.4800	.4346					
개인 및 가족 의 태도	자립의지								.139**	.0413	.1185**	.0456	
	부모의 교육태도	포기							-.0367	.4163			
		동등							-.2421	.3701			
		더 열성적							-	-			
	부모의 장래태도	자립시키려 노력							.5744	.5340			
		부모·형제에게 의존							.2722	.5006			
결혼으로 해결								-	-				
constant			1.4284		1.5392		.1648		-1.4919		2.0668		
n			299		268		316		190		278		
-2 log likelihood			383.248		345.075		436.646		244.981		318.510		
Goodness of Fit			296.554		268.387		316.000		191.206		270.056		
$\chi^2$			31.090**		26.317**		1.309		16.707**		66.880**		

#p <.1 \*p <.05 \*\*p <.01

<표 3-2>는 욕구만 있는 상태와 욕구가 적극적으로 표출되는 상태의 구분을 예측하는 변수들의 파악과 관련된 모형들의 정리이다. 장애상황 변수 모형(모형 I)에서는 장애유형과 장애등급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인구사회학적인 변수 모형(모형 II)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연령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직업경험 및 훈련 변수 모형(모형 III)에서는 직업 경험여부와 직업훈련 경험여부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개인 및 가족의 태도관련 변수 모형(모형 IV)에서는 자립의지와 여성장애인의 장래에 대한 부모의 태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각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만을 선택하여 구성한 최종모형(모형 V)에서는 연령과 직업경험 및 직업훈련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장애유형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종모형을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계수를 해석하면, 장애유형에서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갖는 여성장애인들이 취업을 위해 단지 욕구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취업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할 odds가 정신지체를 갖는 여성장애인들에 비해 2.7배 큼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정신지체를 갖는 여성장애인이 청각 및 언어장애를 갖는 여성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대해 욕구만을 가질 odds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령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하면 취업을 위해 단지 욕구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취업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할 odds가 3.9%씩 증가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성을 <표 3-1>의 결과와 관련 지워 보면, 연령이 증가하면 취업에 대해서 전혀 욕구를 갖지 않는 상태와 취업에 대해 보다 큰 욕구를 갖고 적극적으로 그 욕구를 표출하는 상태 둘 모두가 욕구만을 가지는 상태보다 더 많아 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한편 직업 경험에서는 직업을 가져본 여성장애인이 취업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할 odds가 직업을 가져본 경험이 없는 여성장애인에 비해 4.74배 높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직업 훈련에서도 직업 훈련의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이 취업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할 odds가 직업 훈련의 경험이 없는 여성장애인보다 2.56배 높음을 보여준다. 최종 모형을 기초로 결과를 정리하면, 취업에 대해 욕구만 있는 상태와 취업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상태와의 구별을 예측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측 변수는 장애 상황이나 경제적 상태 등이 아닌 직업 경험임을 알 수 있다. 즉 취업 욕구의 적극적인 표출의 수준과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직업 활동의 경험 여부임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결과는 직업의 경험이 주는 심리적인 자신감이나 직업을 갖는 것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다양한 급부들과 관련된 직접적 이해와 연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후속 조사 연구가 있어서 그 관계를 보다 실증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3-2> 취업욕구의 적극성에 대한 예측 2-취업에 대해 욕구만 있는 상태 대 취업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상태의 구분을 위한 logistic 회귀 분석 결과

분류	독립변수		모형 I		모형II		모형III		모형IV		모형V			
			B	S.E	B	S.E	B	S.E	B	S.E	B	S.E		
장애 상황	장애유형	지체장애	.7504*	.3632							-.0208	.4807		
		청각·언어장애	1.8837**	.4373							.9944#	.5103		
		시각장애	.3631	.3931							-.6987	.5619		
		정신지체	-	-							-	-		
	장애등급 (1-6등급)		.2788**	.0832							.0528	.1130		
	일상생활의존정도		.0136	.1580										
인구 사회 적 상황	연령				.0360*	.0141					.0390**	.0144		
	수입원천	가족내충당			-.1351	.2667								
		국가·친척지원			-	-								
	결혼상태	미혼			-.1085	.4600								
		기혼			-.1646	.3531								
		사별·미혼			-	-								
	학력	초졸이하			-.2933	.2760								
		중졸			-.1295	.3129								
		고졸이상			-	-								
직업 및 직업 훈련 경험	직업경험여부						1.8345**	.2174			1.5558**	.2864		
	직업훈련경험여부						.7850*	.3249			.9392*	.3829		
개인 및 가족 의 태도	자립의지								.0822*	.0383	.0343	.0458		
	부모의 교육태도	포기							-.0324	.3381				
		동등							.2389	.2855				
		더 열성적							-	-				
	부모의 장래태도*	자립시키려 노력							-.5549	.4197	-.5782	.4458		
		부모·형제에게 의존							-.99*	.4120	-.6999	.4651		
		결혼으로 해결							-	-	-	-		
constant										-.0063	-.5391	.8302	-.2221	-.9202
n										468	407	478	326	342
-2 log likelihood										539.066	496.768	514.521	394.812	337.244
Goodness of Fit										475.941	411.362	490.696	325.305	394.263
$\chi^2$										41.876**	14.643*	87.801**	13.423*	90.868**

#p <.1 \*p <.05 \*\*p <.01

<표 3-3>은 취업 욕구가 전혀 없는 상태와 욕구가 적극적으로 표출되는 상태의 구분을 예측하는 변수들의 파악과 관련된 모형들의 정리이다. 장애상황 변수 모형(모형 I)에서는 장애유형과 일상생활 의존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장애등급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접근하고 있고, 인구사회학적인 변수 모형(모형 II)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결혼상태와 학력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직업경험 및 훈련 변수 모형(모형 III)에서는 직업 경험여부와 직업훈련 경험여부 변수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개인 및 가족의 태도관련 변수 모형(모형 IV)에서는 자립의지와 여성장애인의 장래에 대한 부모의 태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각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만을 선택하여 구성한 최종모형(모형V)에서는 장애유형과 직업경험, 자립의지와 여성장애인의 장래에 대한 부모의 태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직업훈련경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종모형을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계수를 해석하면, 장애유형에서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갖는 여성장애인들이 취업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할 odds가 정신지체를 갖는 여성장애인에 비해 6.8배 큼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정신지체를 갖는 여성장애인이 청각 및 언어장애를 갖는 여성장애인에 비해 취업 욕구를 전혀 갖지 않을 odds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직업 경험에서는 직업을 가져본 여성장애인이 취업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할 odds가 직업을 가져본 경험이 없는 여성장애인에 비해 3.4배 높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직업 훈련에서도 직업 훈련의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이 취업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할 odds가 직업 훈련의 경험이 없는 여성장애인보다 2.6배 높음을 보여준다. 한편 자립의지의 경우, 여성장애인의 자립의지가 한 수준 더 높아질 때 취업 욕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출할 odds가 15%씩 증가함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의 장래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보면, 장래를 부모나 형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부모를 가진 여성장애인이 취업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할 odds가 장래를 결혼을 통해 해결하려는 부모를 가진 여성장애인에 비해 25%밖에 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즉 부모나 형제를 통해 장래를 해결하려는 부모를 갖는 여성장애인들이 취업에 대해 욕구를 전혀 갖지 않을 odds가 장래를 결혼을 통해 해결하려는 부모를 갖는 여성장애인에 비해 그 만큼 큼을 보여준다. 정리하면, 취업에 대해 욕구를 전혀 갖지 않는 상태와 취업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상태의 두 범주만을 놓고 각 모형에서 유의미한 변수들만을 포함하여 구성한 최종모형에서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 변수는 장애유형, 장래에 대한 부모의 태도, 직업경험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위의 <표 3-1> 및 <표 3-2>의 결과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일관적이다. 취업 욕구를 갖지 않는 상태와 비교하여 여성장애인이 취업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에는 장애 유형과 직업 경험이 보다 중요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경향의 실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복지적 개입 활동의 지식 기반을 마련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3> 취업욕구의 적극성에 대한 예측 3-취업욕구가 전혀 없는 상태 대 취업욕구가 적극적으로 표출되는 상태의 구분을 위한 logistic 회귀 분석 결과

분류	독립변수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모형 V		
		B	S.E	B	S.E	B	S.E	B	S.E	B	S.E	
장애 상황	장애 유형	지체장애	1.288**	.3392							.5481	.5114
		청각·언어장애	2.049**	.3928							1.9222**	.6324
		시각장애	1.258**	.3851							.8848	.6647
		정신지체	-	-							-	-
	장애등급 (1-6등급)	.1494#	.0855							.1143	.1446	
	일상생활의존정도	-.716**	.1522							-.2715	.2577	
인구 사회 적 상황	수입 원천	연령			-.0124	.0125						
		가족내충당			-.1437	.2420						
		국가·친척지원			-	-						
	결혼 상태	미혼			-.9446*	.4144					.8097	.6014
		기혼			-.1390	.3115					.1752	.4817
		사별·이혼			-	-					-	-
	학력	초졸 이하			-.115**	.2737					-.0028	.4141
		중졸			-.5393**	.3337					-.4214	.4707
		고졸이상			-	-					-	-
직업 및 직업 훈련 경험	직업경험여부					1.899**	.2181			1.2371**	.3667	
	직업훈련경험여부					1.324**	.3754			.9521#	.5001	
개인 및 가족 의 태도	자립의지							.211**	.0403	.1428*	.0573	
	부모 의 교육 태도	포기						.0859	.3810			
		동등						-.0086	.3382			
		더 열성적						-	-			
	부모 의 장래 태도	자립시키려 노력						.1398	.4278	-.5710	.5401	
		부모·형제에게 의존						-.676#	.4055	-1.39**	.5392	
		결혼으로 해결						-	-	-	-	
constant		1.5471		1.3400		1.0208		-1.5711		-1.364		
N		475		413		484		308		305		
-2 log likelihood		516.936		499.272		511.856		315.937		247.015		
Goodness of Fit		480.960		419.547		505.432		335.566		334.515		
$\chi^2$		80.088**		25.560**		103.827**		48.868**		106.057**		

#p < .1 \*p < .05 \*\*p < .01

<표 3-4>는 종속변수를 취업의 욕구 여부로 나누고 취업 욕구가 전혀 없는 상태와 어떤 형태이든 취업에 대해 욕구를 갖는 상태의 구분을 예측하는 모형들의 결과들을 정리한 것이다. 장애상황 변수 모형(모형 I)에서는 장애유형과 일상생활 의존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인구사회학적인 변수 모형(모형 II)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결혼상태와 학력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직업경험 및 훈련 변수 모형(모형 III)에서는 직업 경험여부와 직업훈련 경험여부 변수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개인 및 가족의 태도관련 변수 모형(모형 IV)에서는 자립의지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여성장애인의 장래에 대한 부모의 태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만을 선택하여 구성한 최종모형(모형V)에서는 장애유형과 일상생활 의존정도, 직업경험과 자립의지 및 여성장애인의 장래에 대한 부모의 태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종모형을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계수를 해석하면, 장애유형에서 지체장애를 갖는 여성장애인들이 취업의 욕구를 가질 odds가 정신지체를 갖는 여성장애인에 비해 2.24배 크고,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갖는 여성장애인들의 경우에는 그 odds가 5.1배 크고, 시각장애를 갖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그 odds가 5.5배 큼을 나타내고 있다. 즉 취업 욕구가 전혀 없는 경우와 어떤 형태이더라도 취업에 대해 욕구를 갖는 경우를 놓고 볼 때, 정신지체를 갖는 여성장애인이 다른 형태의 장애를 갖는 여성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대해 욕구를 전혀 갖지 않을 odds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상생활 의존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여성장애인이 도움의 필요성을 한 수준 더 높게 가질 때 취업에 대한 욕구를 가질 odds가 56% 떨어짐을 즉 44%씩 감소됨을 보여준다. 즉 일상생활에서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취업 욕구를 전혀 갖지 않을 odds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직업 경험에서는 직업을 가져본 여성장애인이 취업에 대해 욕구를 가질 odds가 직업을 가져본 경험이 없는 여성장애인에 비해 2.2배 높음을 보여준다. 한편 자립의지의 경우, 여성장애인의 자립의지가 한 수준 더 높아질 때 취업에 대한 욕구를 가질 odds가 15%씩 증가함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의 장래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보면, 장래를 부모나 형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부모를 가진 여성장애인이 취업 욕구를 가질 odds가 장래를 결혼을 통해 해결하려는 부모를 가진 여성장애인에 비해 28%밖에 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즉 부모나 형제를 통해 장래를 해결하려는 부모를 갖는 여성장애인들이 취업에 대해 욕구를 전혀 갖지 않을 odds가 장래를 결혼을 통해 해결하려는 부모를 갖는 여성장애인들에 비해서 그 만큼 큼을 보여준다. 최종모형에서의 결과는 여성장애인이 취업에 대해 어떤 형태이든지 욕구를 갖는 것에는 직업 경험을 비롯한 보다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3-4> 취업욕구 보유 여부에 대한 예측-취업 욕구가 전혀 없는 상태와 어떤 형태이든 취업에 대해 욕구를 갖는 상태의 구분을 위한 logistic 회귀 분석 결과

분류	독립변수	모형 I		모형II		모형III		모형IV		모형V		
		B	S.E	B	S.E	B	S.E	B	S.E	B	S.E	
장애 상황	장애유형	지체장애	.9713**	.2821							.8056#	.4473
		청각·언어장애	1.4356**	.3457							1.6262**	.5855
		시각장애	1.1006**	.3224							1.7019**	.5839
		정신지체	-	-							-	-
	장애등급 (1-6등급)	.0673	.0815									
	일상생활의존정도	-.7237**	.1364							-.5832**	.2094	
인구 사회적 상황	연령				-.0217#	.0116					-.0570	.0195
	수입원천	가족내충당			-.1040	.2317						
		국가·친척지원			-	-						
	결혼상태	미혼			-.7928*	.3898					.2677	.6024
		기혼			-.0596	.2980					.4660	.4579
		사별·이혼			-	-					-	-
	학력	초졸이하			-1.0576**	.2543					.2123	.3866
		중졸			-.4919	.3169					-.4934	.4180
고졸이상				-	-					-	-	
직업 및 직업 훈련 경험	직업경험여부						1.1420**	.1919			.7732*	.3516
	직업훈련경험여부						.9454**	.3551			.3741	.4778
개인 및 가족의 태도	자립의지								.1974**	.0367	.1401**	.0503
	부모의 교육태도	포기							.0586	.3509		
		동등							-.0857	.3147		
		더 열성적							-	-		
	부모의 장래태도	자립시키려 노력							.1813	.4169	-.5702	.5135
		부모·형제에게 의존							-.4547#	.3858	-1.2668*	.5073
		결혼으로 해결							-	-	-	-
constant		2.2488		2.0865		1.4607		-.9729		3.1471		
n		629		551		645		417		403		
-2 log likelihood		631.044		589.640		673.550		380.202		307.842		
Goodness of Fit		637.417		556.176		652.155		457.303		451.074		
$\chi^2$		66.881**		28.400**		51.312**		44.242**		93.813**		

#p <.1 \*p <.05 \*\*p <.01

<표 3-5>는 종속변수를 취업 욕구의 적극적 표출 여부로 나누고 취업에 대해 욕구를 갖지 않는 상태 및 욕구만 갖는 상태와 취업에 대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상태의 구분을 예측하는 모형들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장애상황 변수 모형(모형 I)에서는 장애유형과 장애등급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인구사회학적인 변수 모형(모형 II)에서는 연령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직업경험 및 훈련 변수 모형(모형 III)에서는 직업 경험여부와 직업훈련 경험여부 변수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개인 및 가족의 태도관련 변수 모형(모형 IV)에서는 자립의지 변수와 여성장애인 장래에 대한 부모의 태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각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만을 선택하여 구성한 최종모형(모형 V)에서는 장애유형과 연령, 직업경험과 직업훈련 경험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종모형을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계수를 해석하면, 장애유형에서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갖는 여성장애인의 경우에 취업에 대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할 odds가 정신지체를 갖는 여성장애인에 비해 2.7배 큼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정신지체를 갖는 여성장애인이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갖는 여성장애인에 비해 취업 욕구를 갖지 않거나 욕구만을 가질 odds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연령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하면 취업에 대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할 odds가 4%씩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 3-1>의 결과 및 <표 3-2>의 결과와 종합하여 연령이 나타내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성장애인들의 경우에 연령이 증가하면 취업에 대해 전혀 욕구를 갖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경우와 취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욕구를 표출하는 상태로 있는 경우 이 둘 모두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5>의 결과는 이 둘 가능성 중에서도 특히 취업에 대한 욕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 한편 직업 경험에서는 직업을 가져본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이 취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욕구를 표출할 odds가 직업을 가져본 경험이 없는 여성장애인에 비해 4.8배 높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직업훈련 경험에서는 직업훈련의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이 취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욕구를 표출할 odds가 직업훈련의 경험이 없는 여성장애인에 비해 2.58배 높음을 보여준다. 정리하면, 최종모형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측 변수는 <표 3-2>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장애 상황이나 경제적 상태 등이 아닌 직업 경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장애인의 직업 경험이 그들의 경제적 활동에의 참여와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와 추론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후속 조사 연구가 있어서 그 관계를 보다 실증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3-5> 취업 욕구의 적극적 표출 여부에 대한 예측-취업에 대해 욕구를 갖지 않는 상태 및 욕구만 갖는 상태 대 취업에 대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상태의 구분을 위한 logistic 회귀 분석 결과

분류	독립변수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모형 V		
		B	S.E	B	S.E	B	S.E	B	S.E	B	S.E	
장애 상황	장애유형	지체장애	.7373*	.3630							-.0372	.4809
		청각·언어장애	1.8811**	.4372							.9935#	.5111
		시각장애	.3609	.3931							-.7086	.5628
		정신지체	-	-							-	-
	장애등급 (1-6등급)	.2747**	.0827							.0470	.1127	
	일상생활의존정도	.0005	.1575									
인구 사회적 상황	연령				.0360*	.0140					.0396**	.0144
	수입원천	가족내충당			-.1336	.2664						
		국가·친척지원			-	-						
	결혼상태	미혼			-.1201	.4586						
		기혼			-.1576	.3529						
		사별·이혼			-	-						
	학력	초졸이하			-.2768	.2756						
		중졸			-.1203	.3126						
고졸이상				-	-							
직업 및 직업훈련 관련	직업경험여부						1.8486**	.2171			1.5715**	.2858
	직업훈련경험여부						.7870*	.3251			.9464*	.3832
개인 및 가족의 태도	자립의지								.0830*	.0382	.0349	.0459
	부모의 교육태도	포기							-.0062	.3370		
		동등							.2706	.2837		
		더 열성적							-	-		
	부모의 장래태도	자립시키려 노력									-.5734	.4194
		부모·형제에게 의존									-.9930*	.4121
결혼으로 해결										-	-	
constant		.0299		-.5458		.8282		-.2406		-.9313		
n		470		409		480		327		343		
-2 log likelihood		542.323		499.245		515.939		397.044		338.091		
Goodness of Fit		477.527		413.184		492.935		326.210		396.788		
$\chi^2$		41.695**		15.208*		89.418**		13.469*		92.302**		

#p <.1 \*p <.05 \*\*p <.01

<표 3-6>은 위에서 분석된 최종 모형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들을 정리한 것으로서 이러한 비교 정리는 취업 욕구 수준의 세 범주를 계구성한 각 종속변수에 대한 각 독립 변수의 예측력의 양상을 파악하는데 유용함이 있을 것으로 본다. 먼저 장애유형에서 전반적으로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가지는 여성장애인들이 정신지체를 갖는 여성장애인들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장애등급은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종속변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력이 전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일상생활에서의 의존도 변수는 의존의 정도가 높은 여성장애인들일수록 취업에 대한 욕구를 갖지 않을 가능성이 보다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 변수의 경우 위에서도 기술하였듯이, 연령이 증가하면 여성장애인이 취업에 대해 전혀 욕구를 갖지 않는 상태로 있을 경우와 취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욕구를 표출하는 상태로 있을 경우 이 둘 모두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이 두 경우 중에서도 후자의 가능성이 보다 높음을 보여준다. 수입원천, 결혼상태, 학력과 같은 인구사회화적인 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한편 직업 경험 여부 변수가 상당히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력이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취업 욕구의 적극적인 표출 여부와 관련하여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보다 더 큼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장애인들의 직업 경험이 취업 욕구의 생성 및 보유, 특히 욕구의 적극적인 표출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짐을 나타내는 것인데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후속 연구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직업훈련 경험여부의 변수도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력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예측력이 직업 경험 변수와 마찬가지로 취업 욕구의 적극적 표출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유의미함을 나타낸다. 자립의지 변수의 경우도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력이 있음을 나타내는데 특히 취업 욕구 보유 여부에 대해서 그러한 예측력이 보다 큼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과 가족의 태도 관련 변수들 중에서 여성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모든 경우에 있어 전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 장래에 대한 부모의 태도 변수는 취업 욕구의 적극적 표출과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장래를 부모나 형제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부모를 갖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결혼 등의 방법을 통해 장래를 해결하려고 했던 부모를 갖는 여성장애인에 비해 이들이 취업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보다 적음을 보여준다. 정리하면, 표 3-6은 여성장애인의 취업 욕구 수준은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각 변수의 영향력은 취업 욕구 수준 내용의 구성 형태에 따라 다소의 변화가 있음을 나타낸다. 앞으로 여성장애인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인 취업 욕구와 관련하여 지식의 축적 작업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여성장애인의 취업 확대를 위한 보다 실제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3-6> 최종모델들의 비교--logistic 회귀 분석 결과

분류	독립변수		취업욕구가 전혀 없는 상태 대 취업욕구만 있는 상태		취업욕구만 있는 상태 대 취업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상태		취업욕구가 전혀 없는 상태 대 취업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상태		취업 욕구 보유 여부		취업 욕구의 적극적 표출 여부	
			B	S.E	B	S.E	B	S.E	B	S.E	B	S.E
장애상황	장애유형	지체장애	1.0427*	.4687	-.0208	.4807	.5481	.5114	.8056#	.4473	-.0372	.4809
		청각·언어장애	.4726	.5807	.9944#	.5103	1.9222**	.6324	1.6262**	.5855	.9935#	.5111
		시각장애	2.0504**	.5363	-.6987	.5619	.8848	.6647	1.7019**	.5839	-.7086	.5628
		정신지체	-	-	-	-	-	-	-	-	-	-
	장애등급 (1-6등급)				.0528	.1130	.1143	.1446			.0470	.1127
	일상생활의존정도				-.6234**	.1993			-.2715	.2577	-.5832**	.2094
인구사회적 상황	연령				-.0616**	.0139	.0390**	.0144			-.0570	.0195
	수입원천	가족내충당										
		국가·친척지원										
	결혼상태	미혼					.8097	.6014	.2677	.6024		
		기혼					.1752	.4817	.4660	.4579		
		사별·이혼					-	-	-	-		
	학력	초졸이하			.0238	.3372			-.0028	.4141	.2123	.3866
		중졸			.1533	.3894			-.4214	.4707	-.4934	.4180
		고졸이상			-	-			-	-	-	-
	직업 및 직업훈련 경험	직업경험여부				1.5558**	.2864	1.2371**	.3667	.7732*	.3516	1.572**
직업훈련경험여부				.9392*	.3829	.9521#	.5001	.3741	.4778	.9464*	.3832	
개인 및 가족의 태도	자립의지				.1185**	.0456	.0343	.0458	.1428*	.0573	.1401**	.0503
	부모의 교육태도	포기										
		동등										
		더 열성적										
	부모의 장애태도	자립시키려 노력					-.5782	.4458	-.5710	.5401	-.5702	.5135
		부모·형제에게 의존					-.6999	.4651	-.1398**	.5392	-1.2668*	.5073
결혼으로 해결						-	-	-	-	-	-	
constant				2.0668		-.9202		-.1364		3.1471		
n				278		342		305		403		
-2 log likelihood				318.510		337.244		247.015		307.842		
Goodness of Fit				270.056		394.263		334.515		451.074		
$\chi^2$				66.880**		90.868**		106.057**		93.813**		

#p <.1 \*p <.05 \*\*p <.01

#### IV. 결론과 논의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취업 욕구와 관련하여 취업 욕구가 있는 여성장애인이 상당한 규모(약 75%)에 달하고 실제로 취업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이 약 51%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 수준이 장애 유형, 등급, 일상생활에서의 의존도, 연령, 결혼상태, 학력, 직업 경험, 직업훈련 경험, 자립의지, 여성장애인 장애에 대한 태도 등과 관련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 이들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 장애 유형, 일상생활에서의 의존도, 연령, 직업 경험, 직업훈련 경험, 자립의지 및 여성장애인 장애에 대한 태도 변수가 여성장애인의 취업 욕구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수는 직업 경험이었다. 이는 직업 경험이 여성장애인의 경험을 확대하고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 경제활동 참여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결과들을 실천적인 맥락에서 현행 장애인 고용정책에 적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장애유형별 개별화된 고용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특히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매우 시급함을 보여주는데, 앞으로 중증장애인 직역확대사업,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고용사업, 사후지도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하고 개별화된 접근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별화의 문제와 함께 장애인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함에 있어 장애인의 시각, 즉 주관성(subjectivity)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 각 장애 유형별 욕구에 대응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현재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직업전문학교 차원에서 직업훈련이 시행되고 있으나 좀더 적실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여성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직업 훈련에 있어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는 방법, 기숙이 여의치 않은 여성장애인들이 적합한 장소에서 필요한 직업훈련을 자유롭게 습득하게 하기 위해 직업 훈련의 조건을 갖춘 사설 훈련기관을 이용하는 바우처 시스템(voucher system) 방법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취업 욕구를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여성장애인의 교육 기회 확대의 노력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진작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애인의 가능성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지도를 높이고 장애인의 직업 활동의 확대를 가능케 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통해 고학력 여성장애인력이 양산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즉 장애인 특례입학 제도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와 장애인에 대한 고등

교육시설의 개방 등의 노력과 함께 우리 사회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의 가능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직업 경험이나 직업훈련 경험, 자립 의지 및 여성장애인 장래에 대한 태도 변수가 여성장애인의 취업 욕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때, 긍정적인 직업경험이나 직업훈련 경험을 가진 여성장애인들의 사례를 홍보하여 아직 취업 전선에 참여하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는 물론 고용주나 사회 구성원들에게 여성장애인들의 직업생활과 자립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이점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주지시키서 여성장애인들 스스로의 자립의지를 고양시키고, 보다 폭넓은 사회적인 수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정책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요망된다.

## 참고문헌

- 구본권 외. 1995. 특수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수영. 1998. 여성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심리재활에 관한 연구. 철학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이경희. 1996. 중도척수손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재활체계모형. 행정학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이수봉. 1996. "한국의 장애인 노동시장분석". 장애인 고용. 봄호. pp. 23-37.
- 이선우. 1997.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33호. pp. 287-313.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7. 여성 장애우 전국 실태 조사 발표회 자료.
- 최영하. 1994. "정신지체아 직업재활의 서설적 연구". 특수교육학회지. 15(2). pp. 145-165.
- 최중욱. 1981. 정신박약아에 대한 이해와 태도연구. 철학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대학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장애인실태조사보고.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장애인 취업실태와 고용의 경제적 효과.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7. 여성장애인의 취업실태 및 고용기회 확대방안. 서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Brolin, D. 1972. "Value of Rehabilitation Services and Correlates of Vocational Success with the Mentally Retarded." *Amerci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76. 644-651.
- Fourqurean, J. M., Meisgeier, C., Swank, P. R., and Williams, R. E. 1991. "Correlates of Postsecondary Employment Outcomes for Young Adul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4. 400-405.
- Fulton, S. A., and E. J. Sabornie. 1994. "Evidence of employment in equality among female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Summer 94. Vol.28. 149-166.
- Maccoby, E. M., and C. N. Jackli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tlin, M. W. 1987. *The Psychology of Wome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Lunnenborg, P. W., and V. M. Wilson. 1982. *To Work: A Guide for Women College Graduat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Patton, J. R., M. Beirne-Smith, and J. S. Payne. 1990. *Mental Retardation* (3rd ed.). Columbus, OH: Merrill.



- Perduta-Fulginiti, P. S. 1996. "Impact of bladder and bowel dysfunction on sexuality and self-esteem." In D. M. Krotoski and M. A. Nosek (eds.).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Maryland: Paul H. Brookers Publishing.
- Russo, N. F., and M. A. Jansen. 1988. "Women, Work, and Disability: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M. Fine and A. Asch (eds). *Women with Disabilities: Essays in Psychology, Culture, and Politic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Silverman, B., B. Simon, and R. Woodrow. 1991. "Workers in Job Jeopardy." H. Gitterman (ed.). *Handbook of Social Work Practice with Vulnerable Populatio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Wagner, M. 1992. *Being Female-A Secondary Disability? Gender Defferences in the Transition Experiences of Young People with Disabiliti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Special Education Special Interest Group). San Francisco.

## Abstract

### A Study of Disabled Women's Job Needs

Kim, Ki Tae · Park, Byung Hyun · Kang, Chul Hee · Lee, Sung Kyu · Lee, Kyung Hee

The primary objectives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job needs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Korea and (2) factors that predicts the degrees of their job needs. This study uses the data based on interviews with 805 disabled women selected randomly from the registered disabled women in Seoul, Kuyngki-Do, Pusan, and Kuyngsangnam-Do. In the aspect of disabilities, this study showed that more than half of disabled women in our sample have very severe disabilities (1st degree and 2nd degree of disabilities) and needs others' help in their daily lives. In the demographic aspect, this study found that disabled women's education level is very low and their monthly income is also very low. This study also found that in spite of their disabilities and functional limitations, more than 3/4 of disabled women have needs about jobs. Finally,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disabled women's type of disabilities, dependencies in daily life, age, job experiences, job training experiences, willingness for independence, and parental attitude about disabled women's futu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redicting the degree of their job need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developing knowledge about disabled women's characteristics and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strategies and assistance programs related to promoting their welfare.

김기태

Tel: 051-510-2117 Fax: 051-517-4662, E-mail: ktkimsw@hyowon.pusan.ac.kr